

1

2011 북엑스포 아메리카(2011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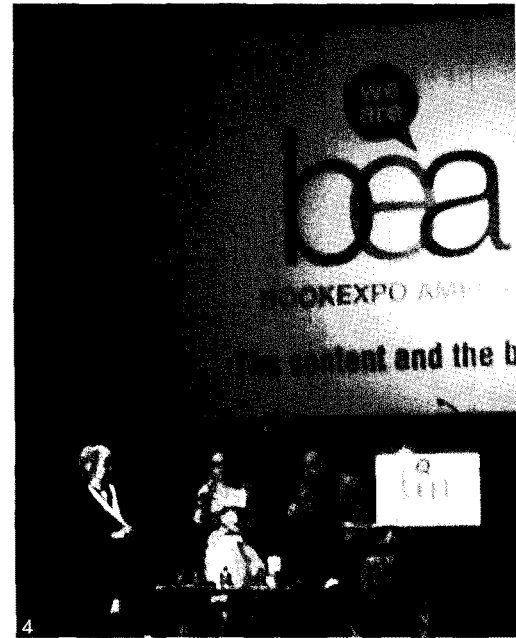
인협, 한국인쇄문화관서 수출촉진 활동

2011북엑스포 아메리카(2011BEA)가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렸다. 북미 최대의 출판관련전시회인 이번 전시회에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한국인쇄문화관을 설치하고 직지를 비롯한 한국 인쇄 문화를 홍보하는 한편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영문 홍보물을 상담과 함께 배포했다. 또한 수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의 최신 동향을 파악, 국내 인쇄물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현지 구매자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응하는 상담과 함께 해당 업체를 연결해 주는 활동을 펼쳤다.

2011 북엑스포 아메리카(2011 BEA)는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D.C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Reed Exhibitions가 주최하고 ABA(미국서적상협회), AAP(미국출판협회), AAR(미국작가협회)가 후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2만1천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1. 2011BEA전경 2. 한국인쇄문화관 3.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 4. 전시회 기간에 열린 이벤트 5. 2011BEA로고

전자책 약진, 디지털 출판 경향 강화돼

이번 전시회를 통해 두드러진 몇 가지 경향은 디지털 출판 경향의 강화였다. 전시회 기간 동안 블로그월드 및 뉴미디어 엑스포를 같은 전시장에서 함께 개최했다. 블로그월드는 관련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전시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뉴미디어 산업을 진단하고, 관련 콘텐츠 제작, 유통, 상업화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영향력 있는 블로거, 웹 TV 및 라디오 방송사,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노하우, PR 및 마케팅 인력, 기술 등에 대한 전시와 소개의 장이 되었다. 또한, 전자책(eBook) 분야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포럼인 국제 디지털 출판 회의(IDPF)도 함께 개최되어 디지털 출판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IDPF 디지털 존이 형성되어 뉴미디어의 쟁점, 블로거, 전자책 출판,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전시가 함께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출판계의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빅 아이디어즈(Big Ideas) 컨퍼런스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출판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업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강연이 이뤄져 '전자책 출판 및 판매 전략',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전략', '디지털 시대 출판계의 진화에 따른 제작, 생산의 진화', '전자책 흥수 속 종이 인쇄 서적에 대한 미래' 등 디지털 출판 시대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한 쟁점이 주로 다뤄졌다.

한편, 올해 글로벌 마켓 포럼의 주인공은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무역 위원회 및 출판 협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이탈리아 출판 현황 및 발전 가능성, 볼로냐 아동 도서전, 이탈리아 문화와 디지털 출판의 관계 등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참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유명 인사 강연회 및 사인회를 통해 관람객을 유치하는 마케팅이 활발했다. 제인 폰다, 제인 린치, 존 리스고, 마이클 무어 감독 등 국내에서도 유명한 미국 내 유명 인사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강연회에서 발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방문객 유치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5개사 직접 참가, 22개사 위탁 전시, 2개사 개별부스 참여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한국인쇄문화관은 두산동아, 청아문화사, 팩컴, 글로벌프린트팩, 해머아트 등 5개사가 직접 참가했으며, 타라와 아시아프린팅이 개별부스를 마련했고, 22개 업체가 위탁 전시했다. Hall 3, 부스 번호 4582에 위치한 한국관은 전체적인 디자인은 선명한 분홍색과 흰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로 구성했다. 또한 Printing Korea의 타이틀로 통일성을 두어 방문객이 한국의 인쇄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인쇄문화관이지만 각 참가사마다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인쇄물 및 위탁 전시 업체 브로슈어 전시 및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직지 등 한국의 고인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시연행사는 현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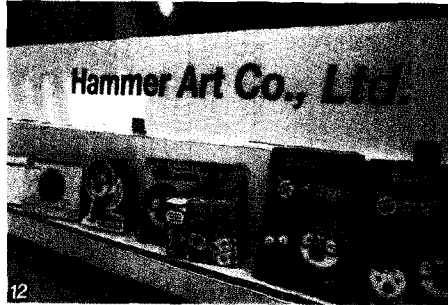
실질적 부문서 한국 인쇄 인지도 높여

북미 최대 규모의 출판 관계 전시회인 북엑스포 아메리카에 참가한 인협은 실질적인 성과 확충에 주력했다. 한국 인쇄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인쇄사가 실제 및 잠재 구매자와 직접 만나 상담토록 연결하여 수출 증대를 도모했다. 또한 해외 주요 출판계 및 인쇄 시장의 동향 파악을 파악하고 출판계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하는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패널을 활용, 한국 인쇄문화를 홍보했다. 직지심체요절을 소개했으며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 한국 인쇄문화 현황, 협회 소개 등 한국의 우수한 인쇄문화에 관한 패널을 제작, 관람객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인쇄문화의 역사와 현황, 주요 수출업체의 명단이 포함된 영문 홍보물과 한국 인쇄문화 홍보용 리플릿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쇄문화 홍보 및 인쇄수출 증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영문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통해 거둔 성과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와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한국의 옛 인쇄방식에 따라 직접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고 한국 인쇄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번 전시회의 방문객은 고화질 포토북 인쇄, 친환경 인쇄가능 여부, 한국어책 출판에 대한 상담을 주로 했으며 40여 건의 상담 건수와 3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다.



6. 한국인쇄문화관을 찾은 관람객
7. 직지 시연을 한 관람객들
8. 직지 시연을위한 도구들



청아문화사의 상담모습
글로벌프린트팩을 찾은 바이어
백컴의 상담모습
해머아트사의 인쇄물
두산동아의 부스를 찾은 바이어

박엽지 인쇄 등 고급컬러인쇄물 선보인 청아문화사

청아문화사(대표 김남수)는 이번 전시회에 고급컬러인쇄를 비롯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박엽지 인쇄 등을 주로 선보였다. 사전, 성경 업계의 인쇄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등 고급인쇄기술을 보유한 인쇄사이다. 특히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 전문 사전, 시리즈 교재물 등의 서적을 전통적인 문양이 표현된 장식물과 함께 전시하여 방문객의 눈길을 끌고 한국의 문화를 알렸다. 청아문화사는 성경, 일반 서적, 컬러 양장 서적을 전시했다.

고품질 인쇄물 내세운 글로벌프린트팩

글로벌프린트팩(대표 배성민)은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품질의 인쇄물 즉 화집, 만화 잡지, 어린이용 학습 교재 등을 중점으로 카탈로그와 같은 상업 인쇄, 패키지 등 다방면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수출 중심의 인쇄사이다. 이번 전시회에 도서, 잡지, 동화책, 학습 교재를 비롯하여 요리 책자, 페인팅 잡지, 코믹북 등 고품질을 요구하는 인쇄물 등 전시했다. 글로벌프린트팩은 일반도서, 하드커버, 잡지, 어린이용 서적 등 전시해 미국 현지인 영업 대표와 함께 영어권 구매자가 보다 쉽게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양한 형태의 인쇄물 내세운 두산동아

두산 동아 그룹 내 인쇄 사업부인 두산동아는 각종 책자와 상업인쇄물, 라벨, 패키지 등 다방면의 인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이번 전시회에 다양한 형태의 캘린더, 양장 서적, 무선 책자 등을 전시하는 한편, 프로젝터를 이용한 동영상 상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캘린더, 양장도서, 무선책자 등을 출품했다. 방문객들의 관심분야는 POD, 한국 인쇄물 현황이었다.

고화질 특수인쇄 내세운 팩컴

국내외 인쇄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고화질 특수 인

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팩컴(대표 김경수)은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포토북, 선명한 컬러의 학습교재 및 부속 용품, 패션 잡지 등 주로 수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위주로 전시했다. 일반도서, 하드커버, 잡지 등을 출품한 팩컴의 방문객들은 FSC 등 친환경 인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문구용품에서 특수인쇄로, 해머아트

문구용품에서 다진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는 등 수출 면에서는 신생 업체인 해머아트(대표 도경수)는 국내에서는 이미 탄탄한 기반을 잡고 있다. 캐릭터 인쇄, 노트, 아동용 도서, 특수 캘린더 등 문구용품 및 어린이용 도서에 중점을 두어 전시했다. 전시 품목은 아동 도서, 장애인용 캘린더, 캐릭터 노트 등이었다. 해머아트는 부스에 찾아오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전시에 참가하고 있는 출판사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글로벌인쇄기업 내세운 타라 TPS

타라TPS는 이번 전시회에 단독 부스로 참가해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타라(대표 이원순)의 이미지를 알렸다. 실제로 인쇄 업계에서 몇안되는 대량 수출업체 가운데 하나인 타라는 그동안에도 수출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쌓아왔다. 타라그룹은 타라TPS, 타라그래픽스 등으로 인쇄 전문 계열사를 구성, 인쇄전문그룹을 지향해 오고 있다.

다양함과 고품질 내세운 아시아프린팅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아시아프린팅(대표 이국홍)은 이번 전시회에 다양한 인쇄물을 선보여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한국에서는 어떤 분야의 인쇄물이라도 고품질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